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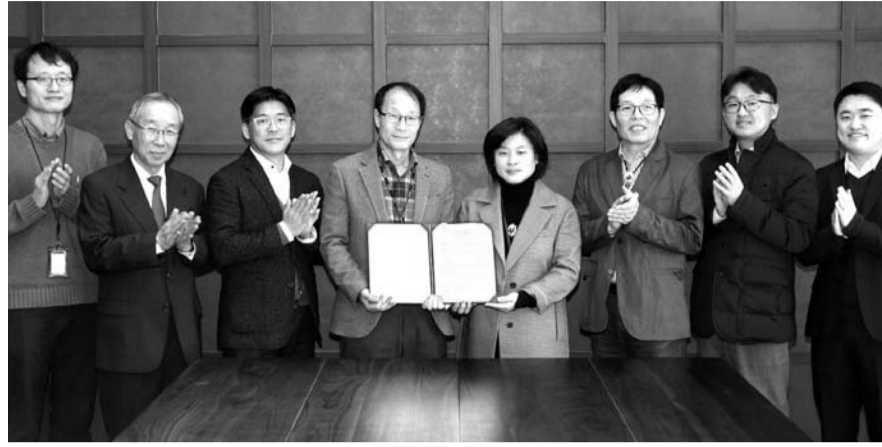


우리 집 거실에도 무궁화 한 그루 심어볼까

방사선 육종기술로 태어난 신품종 무궁화 '꼬마' 탄생 원자력연구원, 식물공예 기업에 기술이전 대중화 앞장

“우리 집 거실에도 무궁화 한 그루 심어 볼까.”
방사선 육종기술로 태어난 무궁화 ‘꼬마’가 실험실 문밖으로 나와 대중과 만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첨단방사선연구소 방사선육종연구실에서 개발한 무궁화 신 품종 보호권을 식물공예 문화상품 전문기업에 이전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액 기술료 4500만원에 매출액 3%를 경상 기술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술실시 계약했다.
무궁화 ‘꼬마’는 ‘홍단심 2호’에 감마선을 쬐어 만들었다.
크기가 작은 왜성(矮性) 변이체를 선발·육성했다.
‘꼬마’는 5년생 기준 키가 30cm 정도다.

꽃과 잎은 기존 무궁화의 절반 크기 정도여서 양중했다. 꼬마라는 이름도 작고 아담하다는 의미로 지은 것이다.
즙액이 적어서 진딧물 같은 병충해에 무척 강하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아파트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분재로 키우기에 적합하다는 뜻이다.
‘꼬마’ 품종은 앞서 2009년도에 한 차례 통상실시권을 이전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업체 측은 꽃누르미(압화)와 식물 이용 공예품 제작 등 신 품종 대중화와 수출용 한류 상품 개발을 위해 추가로 연구원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나라꽃 무궁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품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방사선 육종 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에이치이엔 관계자들이 ‘꼬마’ 기술실시 계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술을 이용한 무궁화 품종 개량에 나서고 있다.
‘백설’, ‘선녀’, ‘대관’, ‘창해’, ‘꼬마’ 등 5개 신 품종을 개발하고, 국립종자관리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
유재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성과확산부장

은 “귀한 나라꽃일수록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이 더 다양한 신 품종을 쉽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 인구늘리기 ‘릴레이협약’ 추진 4대 종교단체들과 첫 협약...여성단체·교육기관으로 확대

전북도는 각급 단체와의 릴레이협약을 통해 인구 늘리기를 도민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종교단체들과 첫 협약식을 했다. <사진>
릴레이협약은 인구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종교단체, 여성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협약을 한 단체나 기관이 다음 협약 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단체는 이날 협약에서 인구 늘

리기 운동을 전북도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내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전북 주소 갖기’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인구 늘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새만금 개발 1년 앞당긴다

새만금특별법 내달 1일 시행...선도 매립사업 내년 착공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선도 매립사업지 착공 시기를 내년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새만금 매립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세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게 돼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등 현재 별도로 심의하는 내용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매립사업이 기존 대비 1년 정도 단축돼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착공 시기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인데, 외부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주고 있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뿐 아니라 이미 새만금 산업단지 들어온 기업에도 적용돼 입주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 지급 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은 1만달러에서 경제자유구역 수준인 2만달러로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 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기업들과 손잡고 여성 경단 방지 일자리 창출·고용유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순창군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지역 기업들과 머리를 맞댔다.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기업들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 주관으로 여성친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사조산업(주), 순창장분가전통식품, (주)진미순창식품, 의료법인희망의료재단, (주)앤앤비, 농업회사법인(주)순창성가정식품, (유)순창돌봄센터, GIP홈케어 등 8개 기업이다.

협약서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채용 승진의 차별을 해소하는 등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업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센터의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 기업들은 향후 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여성 인력을 우선 연계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는 한편 새일여성인턴, 기업환경 개선,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상철 순창군 주민복지실장은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를 만들 계획이다”며 “기업들이 여성친화 일촌기업에 참여토록 적극 장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고창군, 인구 유입 정책 홍보 팸플릿 제작 배포

고창군이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홍보 팸플릿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인구유입으로 인한 각종 주민 혜택을 알리기 위해 ‘인구정책 홍보물-요람’에서 무림까지 고창에서 함께해요’를 제작·배포했다.
이 홍보 팸플릿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생애주기별, 부서별로 소개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결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거주 신혼부부 결혼비용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출산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산모·신

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금 관련 분인부담금을 당초 50%에서 90%로 확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의 소개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 만 54세 이하 귀농한 가구주 1인에게 영농정착금 100만원 지원과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 등의 진행 사항을 알리고 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익산시,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예방을 위한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읍·면·동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 신고, 제보에 참여해 지역사회 위협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사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의무대상인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통장,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차적으로 29일까지며 3000명을 선별한다.
신청은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들은 오는 4월 위촉식과 교육 후 지역복지 활동에 들어간다.
우수활동 참여자에게는 포상, 복지교육, 미담사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에능방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흙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대출 3억 3천만원 포함)

문의. 010-6834-7400

회사 사정상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 010-3627-8282